

UMNO의 파벌주의와 충돌하는 말레이 민족주의

이재현*

- I. 서론
- II. 민족주의와 그에 내재된 갈등
- III. 다문화 민족주의와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의 충돌 : 1969 UMNO의 내분
- IV.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말레이 민족주의 : 1987 UMNO의 분열
- V.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 : 1998의 경우
- VI. 결론

I. 서론

말레이시아의 정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찰자들은 통일말레이국 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 이후 UMNO)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UMNO 파벌주의(factionalism)가 말레이시아 정치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UMNO는 의심할 여지없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크고 중요한 정당이며 집권연합인 국민전선¹⁾의 중심 축으로 독립 이후 현재까지 지배적 정당의 위치를

* 호주 Murdoch University, Schoo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Asia Research Centre) 박사과정.

1) 국민전선(BN : *Barisan Nasional* ; National Front)은 UMNO가 중심이 된 말레이시아의 집권연합이다. 이 연합은 독립직후 형성된 동맹당(Alliance Party)을 모체로 하고 있다(Mauzy 1983).

유지해왔다. 그리고 1990년, 1999년 총선과 같은 몇 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MNO의 권력독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며 국민전선에서 야당연합으로의 정권이동도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UMNO 내부의 역동성은 UMNO의 강력한 겉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띤다. UMNO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거의 매 10년마다 — 즉, 1950년대 초, 1969년, 1975-77년, 1987년 그리고 1998년 — 중요한 파벌투쟁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 분쟁들은 몇 가지 이유, 즉 이들이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UMNO에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치의 주요한 변동들, 즉 1969년 종족폭동, 1988년 UMNO의 분당과 강화된 권위주의, 그리고 1998년 개혁(reformasi)운동과 맞물려 왔다는 점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사안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UMNO 내의 분파주의에 대해 많은 토론이 진행되어왔다. 이 토론들의 주제는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흔히 있는 개인 또는 파벌간의 권력갈등(Crouch 1980, 30), 개인적 차이나 야심의 충돌(Bass 1973, 527-528)이 분쟁의 원인이며 이념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Kershaw 1988, 155)는 주장이 있다. 두 번째로 ‘당내의 다양한 후원-추종관계와 그 구조의 발전’(Gomez and Jomo 1997, 123)이 UMNO 내 파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UMNO가 정당소유의 기업들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다(Gomez 1994)는 점과 집권당으로 국가의 경제자원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세 번째로는 신경제정책 이후 경제적으로 보다 다원화된 말레이 사회내의 계급적 갈등이 — 예를 들면, 팽창하는 중간 계급 내에서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서로 다른 분파간의 갈등과 모순(Shamsul 1988, 173)이 — UMNO에 투영된 결과가 분파주의로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Khoo 1992). 이런 설명들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보완적으로 UMNO 파벌갈등을 설명한다.

여기에 필자는 지금까지 UMNO 분파주의 토론에서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말레이 민족주의라는 변수를 추가하려고 한다. UMNO 엘리

트들은 스스로를 말레이 종족 생존과 이익의 ‘수호자’(protector)라고 주장해왔으며(Muzaffar 1979), 이런 주장의 핵심에는 말레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UMNO 내에서 진행되어왔던 파벌주의와 그 분쟁들에 말레이 민족주의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 진정한 이념적 차이에서든 또는 분파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전략으로든 —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이기 위해 필자는 특히 다종족 사회에서 서로 대립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그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분석 도구로 삼아, 세 번의 분쟁의 사례를 — 즉, 1969, 1987, 1998년 분쟁들을 — 통해 UMNO 분파갈등에 말레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요소가 있어왔음을 보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민족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이 제시해주는 민족주의에 내재된 갈등의 요소 즉, 충돌하는 민족주의적 해석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전체 이론적 윤곽을 잡아 볼 것이다. 이어서, 세 개의 사례들 즉, 1969, 1987 그리고 1998년의 분파갈등을 통해 상호 충돌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들이 UMNO 분파투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글의 제한된 지면 때문에 40여 년에 걸친 세 번의 분파갈등을 자세하게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각 사례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묘사는 절제를 하고 민족주의적 대립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 측면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려 한다.

II. 민족주의와 그에 내재된 갈등

브라운(Brown 2000, 31)은 민족주의를 ‘근대국가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엘리트들이 과거 정통성의 근거가 되어 왔던 신권(divine right)이나 식민정부가 부여한 권력(colonial mandate)을 대체할만한 정통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채운 이념’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족주의적 정통성은 각 개인들이 ‘정체성과 안전’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이라는 ‘미래지향적 낙관론’(forward-looking optimism)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민족국가가 제공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처럼 다종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에서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으로 서로 다른 종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내고 통합한다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집단 즉, (지배적인) 원주민 집단과 이민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해야만 한다.

근대 민족국가를 관찰해 온 학자들은 이런 복합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족주의 엘리트의 시도들을 세 가지, 즉 종족문화적 민족주의(ethno-cultural nationalism),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 그리고 다문화 민족주의(multicultural nationalism)로 파악한다.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서 민족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조상과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동질성에 의해 규정된다(Viroli 1995, 118; Brown 2000, 34-35).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역사적 상징들, 언어, 영웅들, 그리고 문화적 관습’(Hutchinson 1994, 2)의 재현을 통해 한 집단에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부여하며,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 속으로 소수집단을 동화시켜 하나의 민족국가로 묶어 내려 한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적 민족주의에서 민족국가 공동체는 구성원의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이 아니라 구성원이 가진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적제도(public institutions)들에 대한 충성’(Brown 2000, 34-35)이라는 명제에 의해서 규정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은 국가가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신념(Viroli 1995, 47)에서 나온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의 보호라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인, 문화-종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규정된다. 세 번째 해석인 다문화 민족주의(multicultural nationalism)는 앞선 두 가지 주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다문화 민족주의는 종족문화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소수 집단의 지배적 문화로의 동화, 그리고 시민적 민족주의가 외치는 종족적-문화적 차이의 무시에 대한 반발

이며 그 스스로 새로운 사회정의 즉, “소속된 각 종족집단의 동등한 권
리라는 신념에 의해 형성된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한다(Brown 2000,
126-129; Geertz 1963, 107-113).

〈표 1〉 경쟁하는 민족주의의 해석들

	공동체의 성격	종족의 특수성	민족국가와 종족이익
시민적 민족주의	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에 대한 신념으로 결합된 공동체	종족적 배경과 특수성 이 인정되지 않음	개인의 종족 배경에 관 심이 없는 중립적 국가
종족문화적 민족주의	공통의 조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결합된 공동체	지배적 종족의 문화만 인정/소수문화는 지배적 문화로 흡수	지배적 종족의 이익 보장이 공동체 전체 이익에 우선
다문화 민족주의	각 종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단위로 구성된 공동체	종족적 특수성이 최대한으로 인정됨	국가는 소수종족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는 중립적 존재

민족주의를 통한 정치엘리트의 정통성 추구는 한편으로 내재된 갈등의 요소가 있다.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하나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을 때 이 공동체 내에는 복수의 잠재적으로 갈등하는 민족국가 공동체에 대한 해석들 즉, 시민적·종족문화적 또는 다문화 민족주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고, 엘리트들은 이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입장들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다종족 민족국가를 통치하는 엘리트는 이 불안한 균형이 가져오는 긴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Brown 2000, 40-41).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말레이인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말레이인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익과 정체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종족문화적 민족주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주민 집단, 즉 중국인, 인도인의 집단에서 볼 때 국가는 종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종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야 하거나(시민적 민족주의) 또는 각 종족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다문화 민족주의).

민족주의적 정통성의 갈등은 종족간에 뿐만 아니라 한 종족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민족국가 형성시기에 수적 우세로 인해 정치권력을 잡은 다수종족 출신의 정치엘리트들의 민족주의 입장은 다종족국가의 통합이라는 명제 아래 처음 그들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종족문화적 민족주의 성향에서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경우 다종족 국가의 불안한 종족간 통합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초기의 종족문화적 민족주의를 있는 그대로 고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엘리트의 민족주의가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서 점차 시민적 민족주의 또는 다문화 민족주의 쪽으로 이동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민족주의의 변질은 다수 종족집단 내부에서 불만을 낳고 이런 불만은 엘리트들이 지배적 종족의 민족적 이익과 열망을 배신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새로 등장하는 보다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 충실한 엘리트들의 이념적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바로 지배엘리트 집단내의 민족주의 이념을 둘러싼 분파간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²⁾

민족주의 정통성과 이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의 축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간의 갈등이며 이 갈등은 앞서 말한 시민적, 종족문화적 그리고 다문화 민족주의간의 갈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이다.³⁾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외부세력에 대항하여 공

2) 엘리 케두리(Kedourie 1960, 96)도 민족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둘러싼 엘리트 내부의 갈등은 종종 세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보다 강력한 민족주의는 — 많은 민족주의 운동의 이름들(Young Italy, Young Egypt, the Young Turks, the Young Arab Party)이 보여주는 것처럼 — 새로운 세대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배적 다수집단의 정체성이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여기에 종교적 순수성 내지는 근본주의적 주장(fundamentalism)을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기도 한다(Smith 1981).

3) 브라운(Brown 2000, 66-69)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시민적 민족주의,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종족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단순한 동식을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종족문화적 민족주의도 자유주의적일 수 있으며, 시민적 민족주의도 비자유주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는 구도는 시민적, 종족문화적, 다문화 민족주의간의 갈등과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체의 정체성을 찾는 저항운동에서 출발한다. 이중에서 비자유주의적으로 발달하는 민족주의는 안정되지 못하고 확신이 부족한 엘리트에 의해서 주장되며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타자(Others)들에 대한 조작된 불안감을 유포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정통성을 추구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보다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는 엘리트들에 의해 주장되며 이런 엘리트들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타자의 위협과 관련지어 발전시키지 않는다(Brown 2000, 67).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적, 비자유주의적이라는 성격은 엘리트들이 '민족주의적 목표, 불안감, 위협, 또는 적들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적 전망과 위협을 공동체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두 가지 민족주의 성향이 엘리트 집단 내에 공존할 경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즉,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엘리트들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엘리트가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 자유, 사회정의라는 덕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런 주장들을 하는 엘리트들을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다. 즉,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공동체 내부의 자유주의적인 목소리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엘리트들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조장하는 외부의 적, 또는 내부의 자유주의적 목소리에 대한 공포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동체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단순히 권위주의적, 억압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정통성의 기반을 위협하고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엘리트들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따라서 이 두 민족주의는 타협의 가능성이 적다.

III. 다문화 민족주의와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의 충돌 : 1969년 UMNO의 내분

1969년 종족폭동이후 불거져 나온 UMNO 갈등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은 압둘 라만(Abdul Rahman)이 중심이 된 1세대 UMNO 엘리트들과 마하띠르(Mahathir Mohamad) 등이 중심이 된 2세대 엘리트간의 갈등에서 경쟁하는 말레이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1969년 선거에서 UMNO가 중심이 된 동맹당(Alliance Party)이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고, 곧이어 말레이시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사건으로 기억되는 종족폭동이 뒤따랐다. 선거에서의 지지하락과 종족폭동이란 위기는 잠재적이던 UMNO 내의 갈등을 현실로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1969년 마하띠르의 압둘 라만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시작된 내분이다. 마하띠르는 말레이시아 독립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던 압둘 라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퇴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족주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때 이 갈등은 제 1세대의 민족주의에서 말레이인 우선의 종족문화적 민족주의가 점차 국가통합을 위해서 다문화 민족주의적 해석에 밀려나면서 새로 등장하는 보다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 충실한 2세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압둘 라만을 비롯한 1세대 UMNO 엘리트들이 처음부터 다문화 민족주의 쪽으로 기울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초반, 초대 UMNO 총수인 옹 자파(Onn Jaafar)와 압둘 라만을 비롯한 다른 UMNO 엘리트들의 갈등을 통해서 볼 때 1세대 엘리트 역시 강력한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서 시작했다. UMNO는 1946년 옹 자파의 지도 아래 영국식민정부가 제안한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⁴⁾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옹 자파는 말라야 연합 계획을 백지화시킨 직후, 장차

4) 이 말라야 연합계획은 영국식민정부에 의해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위한 구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계획은 곧 말레이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제안이 말레이인들의 원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시민권조항, 술탄의 지위 약화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Mohamed Noordin (1974, 21-23) 참조.

독립국가의 통합을 위해 UMNO의 문호를 모든 종족에게 개방하여 주요종족을 모두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1950년대의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적어도 말레이인들에게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이었다. 결국 대다수의 당원들과 말레이인들은 이런 제안에 반대했고, 이에 반발하여 당을 떠난 웡 자파를 대신해 압둘 라만을 새로운 당의 지도자로 선출했다(Vasil 1971, 39-50).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압둘 라만의 민족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다시 말레이인을 최우선시 하는 말레이 민족주의였다.

1957년 말레이 반도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독립을 성취했고, 압둘 라만은 첫 수상이 되었다. 식민통치의 종식과 함께,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하나의 민족국가의 틀 안에 통합하는 과제는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동맹당, 보다 좁게는 수상인 압둘 라만의 책임이 되었다. 이 국가통합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치 엘리트들이 선택한 정책의 방향들은 분명히 UMNO와 압둘 라만의 말레이 민족주의를 다문화 민족주의 쪽으로 보다 근접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번째, 종족간 협상의 결과인 말라야의 독립헌법(*Merdeka Constitution*)은 말레이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다른 종족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타협을 만들어냈다(Golay et al, 1969, 353-362).⁵⁾ 말레이인의 요구와 비말레이인들의 요구간의 적절한 결합 내지는 타협의 결과인 이 헌법은 말레이인의 종족문화 민족주의를 제어하는 동시에 각 종족들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민족주의적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정치구조를 결정한 동맹당 체제이다. 이 동맹당 체제는 흔히 협의체제(*consociationalism*)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각 종족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엘리트 수준에서의 타협과 협의를 통해 국가 통합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5) 이 종족간의 타협(*bargaining*)은 독립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중요하게 이 타협이 의미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원주민으로서의 말레이인의 특수한 지위와 특수한 권리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족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체제는 UMNO 정치엘리트에 제한으로도 작용했다. 압둘 라만은 동맹당 내의 다른 종족 정당들을 아우르지 못하고서는 지배연합과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가 연합 내의 다른 정당, 특히 말레이시아중국인연합(MCA :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의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Jesudason 1989, 52-56)는 것을 말하며 이런 제약은 나아가서 압둘 라만의 말레이 민족주의를 구속했다. 세 번째로 경제정책에서도 독립 후 여전히 남아 있는 영국의 경제적 이권의 보호, 그리고 타 종족의 경제적 자유의 보장,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압둘 라만이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Searle 1999, 34-35)들을 통해서도 국가의 개입을 통한 말레이인 경제력의 향상이라는 말레이 민족주의적 목표의 실현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미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1세대 엘리트 일부에서 압둘 라만의 민족주의의 변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⁶⁾ 특히 1960년대 중반이후 싱가포르 문제가 가져온 종족갈등의 고조, 공식어 규정을 둘러싼 민족주의 이슈들에서 보인 압둘 라만의 타협적인 자세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⁷⁾ 이런 갈등은 1969년 종족 폭동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몇몇 1세대 엘리트와 새로 등장하는 2세대 엘리트가 합세하여 본격적으로 압둘 라만을 비롯한 1세대 엘리트의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1969년 선거 결과와 종족 폭동을 말레이인들이 UMNO에 대해 가진 불만에서 — 또는 UMNO 1

6) 대표적으로 1세대 엘리트 중에서 1950년대의 압둘 아지즈 이삭(Abdul Aziz Ishak), 1960년대의 자파 알바(Jaafar Albar), 나시르 이스마일(Syed Nasir Ismail) 등이 보다 강력한 말레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던 엘리트들이다. Bass(1973, 544-593), Abdul Aziz(1977)을 볼 것.

7) 1963년 싱가포르와 보르네오의 사바, 사라왁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편입이후 싱가폴은 UMNO의 지도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1965년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Mohamed Noordin(1974, chapter 7)을 참조. 한편, 1957년 독립헌법은 향후 10년간 복수 공용어(영어, 말레이어)의 사용을 허용했고 이 문제는 1967년에 다시 토론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7년 말레이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그들은 말레이어만 공용어로 하고 다른 언어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Ongkili 1985, 194-195).

세대의 변질된 말레이 민족주의에 대한 불만에서 — 기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중국인 자본과 영국식민지 자본에 의해 제약 당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고, 이런 경제적인 불만이 바로 선거결과와 종족폭동으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Case 1995, 93-97).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1세대 UMNO 엘리트들의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말레이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강화된 종족문화적 말레이 민족주의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9 폭동직후, 마하띠르가 압둘 라만에게 보낸 공개서한은 바로 이런 새로운 엘리트들의 인식을 담고있다. 1969년 UMNO 분쟁의 시발이 된 이 편지에서 마하띠르는 첫 번째로 압둘 라만은 말레이인들의 소망과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압둘 라만이 다른 종족,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 너무 약한 자세를 취해왔고, 세 번째로 따라서 압둘 라만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편지의 내용은 von Vorys 1975, 372-374). 또 마하띠르는 압둘 라만이 이끄는 UMNO와 정부가 어떻게 말레이인들의 민족주의적 바람을 저버렸는지, 그의 책 〈말레이의 딜레마〉(*The Malay Dilemma*)에서 밝히고 있다(Mahathir 1970, 10-13).

UMNO는 중국인들에게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말레이인들의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 하지만, UMNO 지도자들은 점차 초기의 정책에서 멀어져갔고, MCA안팎의 중국인들의 조건들과 요구들은 (말레이인들 사이에) 그 예전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 1969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전체가 정부에서 멀어져갔다. 말레이인들은 정부가 계속 중국인들을 우대하고 각 종족간의 부와 발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멀어져갔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말레이인들은 비말레이인, 특히 중국인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2세대 엘리트의 — 마하띠르, 무사 히탐(Musa Hitam) 그리고 라잘레이 함자(Razaleigh Hamzah) 등 — 주장은 UMNO 내부의 분쟁을 초

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말레이 지식인, 학생, 종교지도자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압둘 라만을 비롯한 1세대 엘리트들의 권위와 민족주의적 정통성은 크게 약화되었다(von Vorys 1975, 381-383). 결국 1971년 압둘 라만은 권력을 그의 후계자, 압둘 라작(Abdul Razak)에게 물려주었다. 정권을 잡은 압둘 라작은 2세대 엘리트의 말레이 민족주의가 주장하던 개혁들을 단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압둘 라만을 비판한 이후 당에서 추방되었던 2세대 말레이 민족주의 엘리트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압둘 라작 하의 개혁조치 결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독립이후 말레이시아 경제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었던 신경제정책(Faaland et al. 1990; Jesudason 1989)과 정치구조의 재편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National Front)체제의 출범이었다.

IV.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말레이 민족주의: 1987년 UMNO의 분열

1970년대에 있었던 몇 가지 변화는 1980년대 이후 UMNO 내의 분파갈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첫 번째로 신경제정책의 결과로 말레이사회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말레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다원화되었다. 이런 발전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말레이 사회 내의 갈등을 증가시켰고 이 갈등은 UMNO 내의 분파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번째로는 연합전선 체제의 출범과 함께, UMNO의 정치적 지배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말하면 권력을 둘러싼 UMNO 내의 파벌간 갈등이 증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1970년대 중반 한차례 파벌경쟁(Crouch 1980)을 더 겪은 이후 당 최고의 엘리트 수준에서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2세대 엘리트들이 당 총수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직을 독점하게 된다. 3대 수상 후세인 웅(Hussein Onn)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1981년 UMNO 총재이자 수상이 된 마하피르는 이런 안정된 배경 속에서 권력

을 잡게 된다.

1987년 분쟁은 민족주의를 둘러싼 갈등인 동시에,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2세대 선두주자 두 사람, 즉 마하띠르와 라잘레이 사이의 개인적 분쟁(Ahmad 1993, 53-54)이기도 했으며,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말레이사회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후원(patronage)을 둘러싼 서로 대치되는 이익간의 투쟁이기도 했다(Khoo 1992). 이념, 특히 말레이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이 분쟁을 보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강조에 따라 약화된 마하띠르의 종족문화 민족주의의 약화, 또는 “말레이”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강조하는 시민적 민족주의 조류의 형성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라잘레이 중심의 종족간 분배를 — 경제적인 말레이인 우대정책을 — 강조하는 말레이 민족주의의 간의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떠오르던 신세대 민족주의 엘리트를 대표했던 마하띠르가 수상이 되었을 때, 그의 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예측은 신경제정책과 같은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강화였다. 이후 마하띠르의 정책이나 이념적 입장이 말레이 민족주의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하띠르의 경제정책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었고(Khoo 1995, 109), 따라서 마하띠르의 민족주의는 종족문화적 말레이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종족배경에 상관없이 대자본을 포섭하고 사적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시민적 민족주의 요소를 추가하게 된다. 마하띠르 초기 즉, 1980년대 초에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주식회사 말레이시아(Malaysia Inc.) 정책, 중공업 정책,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후 사유화정책 등은 말레이시아 경제를 초기 산업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 마하띠르는 분배보다는 소수의 자본에 국가자원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택했다(Searle 1999, 47).⁸⁾ 이런 정책의 방향은 종족의 배경에 상관없이 소수자본가

8) 한 인터뷰에서 마하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경제적 부의 몫을 부미 뿌트라내에서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의 성장만을 가져왔고(Heng 1992),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신경제정책이 보다 비중을 두어 추구하던 종족간 분배의 문제는 — 즉,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경제정책은 — 뒷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제정책의 몇 가지 결과들은 마하피르의 정책들이 말레이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말레이 민족주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첫 번째의 예로 1970년대부터 말레이인의 경제력 증가를 위해 추진되어 오던 신경제정책이 1986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 중단되었다(Khoo 1995, 140-143). 이는 다시 말하면 한때 신성불가침이었던 신경제정책의 종족간 재분배 정책이 경제발전 우선이라는 마하피르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수정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말레이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비말레이인을 규제하던 고삐가 많이 풀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마하피르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 이후 신경제정책이라는 국가의 집중적 후원하에 발전한 말레이 자본과 중간계층이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Malaysian Business, 1988/01/01). 이 두 가지의 정책방향은 신경제정책으로 혜택을 누리던 말레이 사회에 강력한 압력으로, 그리고 잠재적인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로, 마하피르의 정책방향은 종족내의 불평등의 증가를 가져왔다. 신경제정책 이전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말레이인과 중국인간의 종족간 불평등 문제에 초점이 놓여져 있었지만, 마하피르의 경제정책이후에는 점점 종족내, 특히 말레이 사회내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종족간 대립이라는 뿌리깊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담론이 점점 다원화되는 말레이 사회내 계급적 입장과 그에 따른 갈등의 분출을 늦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MNO 후원의 혜택을 받은 소수 자본가계급과 그렇지 못한 중소 자본가계급, 그리고 도시 중간계급과 도시 노동자-농촌 말레이계급 간의 차이는 점차 증가되었다(Gomez and Jomo 1997, 5).

마하피르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라는 명제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몫을 넘겨주는 것이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79.04.13).

넘어서 민족주의 — 그리고 민족 정체성 — 문제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즉, 민족주의라는 이념 차원에서, 마하피르의 종족 배경을 불문한 경제발전 정책은 UMNO가 상징하는 민족의 개념을 “말레이인”에서 타 종족을 아우르는 “말레이시아인”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토마스 윌리엄슨(Williamson 2001, 403)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국가의 오랜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는 종족적 분화로 나뉜 사회를 상상의 민족경제(imagined national economy)를 통해서 완전히 재편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제적 부는 말레이시아 민족이라는 개념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었다. 한때 민족문화, 언어, 종족적 유대를 위한 도구차원에 머물렀던 경제발전이 이제 말레이시아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하피르의 경제발전이라는 명제는 이전의 말레이 민족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보다 시민적 민족주의에 근접하는, 즉 모든 종족을 끌어안은 말레이시아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고, 이 말레이시아 민족주의를 향해 가는 노정상의 가장 큰 난관, 즉 종족적 분화와 갈등이라는 문제를 경제발전을 통한 “미래지향적 낙관론”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맞선 라잘레이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내지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하피르의 정책 전환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낀 말레이인들, 특히 UMNO 구성원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라잘레이는 여기에 자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마하피르의 말레이인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향”(dependency mentality)에 대한 잦은 비판, 그리고 1986년 신경제정책의 일시 중단은 1990년 신경제정책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점점 신경제정책 이후 시기에 대한 말레이인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종족간 불평등 해소에서 자본주의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나타난 종족내, 특히 말레이 사회내의 불평등은 혜택을 덜 받은 많은 말레이인 가운데 상당한 불만을 자아냈다. 말레이인의 불안과 불만을 요약

하자면,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동안 더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신경제정책과 그 신경제정책의 말레이인 우대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쿠 부텍(Khoo 1995, 264-265)은 이 시기 갈등관계에 있던 경제정책방향의 두 큰 흐름을 첫 번째는 '경제구조 재편'에 보다 초점을 둔 말레이 그룹과 사적부문이 주도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마하띠르의 경제정책은 — 주로 중국자본과 1980년대 들어서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은 말레이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 사적부문이 이끄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라잘레이는 따라서 경제구조 재편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라잘레이는 이전부터 '보다 공격적인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차질과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더라도 보다 많은 경제자원을 말레이쪽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Business International 1977, 90, Khoo 1992, 70-71에서 재인용). 이런 주장을 배경으로 해서 라잘레이는 198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영향을 받고, 마하띠르의 경제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말레이 중소기업가들과 마하띠르의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적 비전에 동의하지 않은 관료들의 지지를 받았다(Case 1995, 100).

1987년 마하띠르와 라잘레이 사이의 갈등에서도 경제정책의 차이로 표현된 충돌하는 민족주의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마하띠르의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라는 명제 하에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 종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 대자본을 포섭하고, 종족간 분배라는 명제를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라잘레이는 마하띠르의 정책 방향이 만들어 낸 말레이인 사이의 불만 즉, 종족간 분배라는 명제의 약화, 그리고 증가하는 불평등을 끌어안는 보다 말레이인 편향적인 정책, 즉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에 좀더 충실한 정책으로 맞섰던 것이다.

V.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 : 1998년의 경우

1998년 9월 마하띠르는 갑작스럽게 당시 부수상이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을 해임했고 이는 UMNO 내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치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안와르의 해임과 그에 따른 당 내외적 정치위기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된 마하띠르와 안와르 사이의 권력투쟁의 최고조에서 일어난 일이며 또 한번의 당내 파벌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장 최근의 UMNO 내의 분열에서도 역시 민족주의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포착되며, 이는 이전의 파벌주의에 나타난 민족주의(시민적, 다문화적, 종족문화적 민족주의간의)의 충돌과는 다른 차원, 즉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안와르)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마하띠르) 사이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두 민족주의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1990년대에 와서 UMNO 내 민족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이전처럼 말레이 이익을 둘러싼 대립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90년대 초에 완성된 마하띠르의 강력한 지배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마하띠르의 UMNO와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한 지배는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주 공고해졌고 그에 따라서 마하띠르의 반대파는 당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민족주의를 놓고 볼 때 이미 마하띠르의 민족주의는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종족을 말레이시아라는 틀로 묶어내는 동시에, 아래서 보는 것처럼, 한 종족을 다른 종족과 대립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이념적 지배는 반대파들이 보다 강력한 말레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마하띠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념의 공간을 빼앗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마하띠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이 채택할 수 있는 이념적 입장은 마하띠르의 조작된 집단적 두려움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했다.

마하띠르의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한 중가하는 그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앞서 관찰한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외부의 위협에 대한 조작 그리고 이에 따른 집단적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88년 당의 분열⁹⁾을 겪은 이후 마하띠르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보다 강해졌다(Crouch 1992). 1987년 당내 선거에서 거의 패배할 뻔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하띠르는 1987년 10월 UMNO에서 탈퇴한 자신의 정적을 포함한 약 100여명에 달하는 반대집단과 야당인사들을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으로 체포한 바 있다. 비록 형식상 민주주의를 유지시킨 총선을 통한 집권은 계속 이루어졌지만, 언론에 대한 장악, 야당활동의 제한, 그리고 국내안전법, 선동법(*Sedition Act*)등을 통한 반대파의 탄압 등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강도는 1990년대를 통해서 계속 증가되어 왔다(Munro-Kua 1996).

민족주의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통제보다 더 마하띠르의 통치를 비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마하띠르의 통치가 집단적 두려움에 호소하여 정통성과 지지를 끌어낸다는 점이다. 이미 마하띠르는 그가 UMNO에 입문한 초기 즉, 1960년대부터 비말레이집단이 말레이집단의 번영과 정체성의 문제에 던지는 위협을 주장해왔다(Mahathir 1970, 4장; Khoo 1995, 2장). 수상이 된 이후에도 마하띠르는 중국인과 말레이인을 비교하여 말레이집단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즉, 경제적으로 강력한 중국인 집단의 존재로 인해 말레이 종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말레이인의 단결, 그리고

9) 1988년 UMNO의 분당은 마하띠르와 라잘레이간의 파벌주의의 결과이다. 1987년 당내 선거에서 마하띠르는 43표 차로(총 1479표) 라잘레이를 가까스로 눌러 이겼다. 선거지후 라잘레이 측은 등록되지 않은 지구당(branch)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법원에서는 뜻하지 않게 UMNO의 정당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마하띠르는 반대파를 배제한 채 UMNO Baru (new UMNO)라는 새로운 정당을 등록했고 라잘레이 측에서는 그 보다 늦게 *Semangat 46* '(Spirit of 1946)이라는 정당을 등록하여 사실상 UMNO가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었다(Gill 1988).

단합된 말레이인의 지지를 통한 UMNO의 강력한 정치적 지배만이 이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마하띠르는 1987년 라잘레이의 자신에 대한 도전은 바로 UMNO의 단결을 와해하고 나아가서 말레이 사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마하띠르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는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마하띠르의 서방자본, 특히 투기적 자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마하띠르는 서구 국가들이 투기자본을 앞세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10.16, "Eye of the Storm"). 이에서 더 나아가 그의 주장은 유태인이 지배하고 있는 서방자본이 무슬림이 지배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음모론으로까지 발전했다. 이 음모론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마하띠르의 인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 11.27, "Two-Edged Sword").

한편으로는 안와르가 해임된 이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대중집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마하띠르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길 때 마하띠르는 안와르의 주장,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자유주의적인 주장들이 말레이시아와 같은 종족적으로 다양한 구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¹⁰⁾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이루어 온 경제발전, 정치안정을 저해할 뿐이며 국민들에게 이런 세력

10) 이런 마하띠르의 주장은 바로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한다. 완 마난(Wan A. Manan 1999, 361-362)은 마하띠르의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주장을 "서구식의 민주주의는 발전에 저해가 되는 질서와 기강의 문란을 가져오며, 따라서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가장 우선 순위에 놓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시민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에머슨(Emmerson 1995, 236)은 이런 주장들이 권위주의적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서구주의를 조장하고 비자유주의적인 통치를 합리화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을 지지함으로써 UMNO의 지배아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Utusan Malaysia* 2001.09.24, "Dr M wants Sarawakians to Reject Oppositions"). 이처럼 마하띠르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에서 적은 중국인, 서구자본, 서구자유주의, 그리고 말레이 사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논리는 이런 적들이 말레이 사회 또는 말레이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하띠르는 이런 두려움의 조작에 기반하여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마하띠르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대항한 안와르의 선택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안와르가 진정으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또는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하띠르의 서구문화와 자본에 대한 비판에 당황한 서방의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서 안와르는 말레이시아 민주화의 화신으로 그려져왔다. 하지만, 안와르가 UMNO에 들어온 1980년부터 그는 마하띠르의 가장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고, 마하띠르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함께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안와르의 개혁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스럽게 하기도 한다. 하리 싱(Singh 2001, 540)도 '안와르로서는 마하띠르의 이념적 입장에 대비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권위주의적 사회-정치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끌어안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와르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1996년 출판된 그의 책 <아시아의 르네상스>(*The Asian Renaissance*)에서 이미 문화적 다양성,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부정부패의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그의 의견을 나타낸 바 있고(Derichs 2001, 197-201), 비록 명시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나타난 그의 아이디어들은 마하띠르의 생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당내에서 그를 추종하던 UMNO 3세대 엘리트는 그들의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신경제정책의 혜택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교육배경으로 무장하고 다른

종족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확신에 찬 집단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종족에 대해서 훨씬 개방된 세대였다는 점을 볼 때(Ho 1994), 안와르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전략 이상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어쨌든, 안와르에 대한 마하띠르의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와르가 자신과 마하띠르를 이념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끌어안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마하띠르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던 1997년부터 안와르는 차츰 정부와 당의 — 따라서 마하띠르에 관련된 — 부정부패와 특혜주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고(*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06.19, “Credible Clean-Up”), 경제위기 이후 마하띠르가 주도했던 — UMNO와 마하띠르의 추종자들이 소유한 — 대기업들의 구제에 반대하기도 했다. 아마도 안와르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담고 있는 것은 그가 해임된 직후 전국적 대중집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선거구인 페르마땅 빠우(*Permatang Pauh*)에서 발표한 성명일 것이다. 이 성명을 통해서 안와르는 자신이 UMNO 고위층의 정치적 음모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하면서, ‘사회정의, 민주적 정부, 경제적 정의를 위해’ 그리고 ‘부정부패에 반대’하여 전국민이 나서서 “개혁(reformasi)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와르의 이런 자유주의적인 호소는 적어도 2001년을 전후하여 개혁운동이 수그러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안와르가 해임되고 대중집회를 조직하면서 그의 입장이 종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대부분 야당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알리란(Aliran), ‘말레이시아 민중의 소리’(Suaram)등의 널리 알려진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이 안와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야당과 사회단체의 활동, 그리고 거리집회에 대한 마하띠르 정부의 계속되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와르의 구속이후에도 개혁운동의 불씨를 계속 이어나갔다. 비록 1999년 선거에서 집권 국민전선에 큰 타격을 입히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안와르를 중심으로 한 야당과 사회

단체의 결집은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무시하지 못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1999년 선거 직전에 구성된 대안전선(BA : *Barisan Alternatif*; Alternative Front)은 종족에 상관없이 주요 야당들, 즉 말레이인의 범 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 : *Parti Islam Se-Malaysia*), 중국인의 민주행동당(DAP : Democratic Action Party), 안와르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말레이 중심의 다종족 정당인 국민정의당(*KeAdilan* : *Parti Keadilan Nasional* ; National Justice Party), 그리고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말레이시아 민중당(PRM : *Parti Rakyat Malaysia* ; Malaysian People's Party) 등의 정당을 하나로 묶었으며, 여기에 폭넓은 NGO들의 뒷받침이 따랐다. 비록 이전에도 야당연합이 구성된 적이 있기는 했지만, 대안전선처럼 하나의 단일한 움직임으로 조직화된 적은 없었다.

1998년 말레이시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와 맞물려 일어났던 또 한 번의 UMNO의 내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의 충돌하는 민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마하피르의 강력한 지배가 종족문제를 둘러싼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을 소진한 이후의 민족주의적 대립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는 다른 차원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하피르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가 국가외부와 말레이 사회 내부 그리고 다른 종족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동원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면, 안와르는 이에 대항하여 이념적으로 보다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 즉 집단적 두려움이 아닌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자유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측면에 호소하는 민족주의를 통해 마하피르에 대항해 왔고, 이는 나아가서 (비록 현재로는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말레이 사회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회에 커다란 반-마하피르, 반-UMNO 세력을 결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일정한 정도 서로 경쟁하는 민족주의 해석들이 UMNO 파벌주의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UMNO 내의 갈등하는 파벌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종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 내에서 시민적, 종족문화적 그리고 다문화 민족주의간의 갈등,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간의 갈등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UMNO에서 있었던 세 번의 중요한 파벌경쟁에서 이 갈등 구조들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보았다. 1969년의 1세대와 2세대의 갈등, 그리고 1987년 마하띠르와 라잘레이의 경쟁에서는 보다 덜 종족문화적 민족주의적인, 즉 상대적으로 시민적 내지는 다문화 민족주의 요소가 강했던 입장과 보다 종족문화적 민족주의, 즉 말레이인의 정체성과 이익에 충실했던 민족주의가 충돌을 했다. 1998년의 경우는 마하띠르의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이에 대한 반동으로 안와르가 끌어안았던 비교적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간의 갈등이 있었다.

물론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필자는 이 충돌하는 민족주의가 UMNO 파벌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존 연구가 밝히고 있고, 또 필자도 동의하는 것처럼, 개인적 갈등, 추종-후원관계를 둘러싼 경쟁하는 이익의 충돌, 그리고 다원화된 말레이 사회내의 계급갈등과 같은 요소들 역시 UMNO의 파벌갈등에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UMNO 내의 파벌갈등을 파악할 때는 UMNO가 말레이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즉 말레이인의 타종족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표현이며, 말레이 민족주의의 표상이고, 말레이시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위치를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복합적인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여기에서는 말레이 사회와 UMNO라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종족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UMNO의 지배적 위치를 고려할 때 말레이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

을 모두 포함한 전체 말레이시아 사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면 UMNO의 계속되는 파벌주의에 대해서 보다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bdul Aziz, I. 1977. *Special Guest: The Detention in Malaysia of an Ex-cabinet Minister*.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Ahmad, A. H. 1993. *Dimensi Politik Melayu 1980~1990*(말레이시아 정치의 여러 측면들, 1980~1990).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Anwar, I. 1996. *The Asian Renaissance*.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 Bass, J. R. 1973. *Malaysian Politics, 1968-1970: Crisis and Respons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rkeley.
- Brown, D. 2000. *Contemporary Nationalism: Civic, Ethnocultural & Multicultural Politics*. London: Routledge.
- Case, W. 1995. "Malaysia: Aspects and Audiences of Legitimacy". in M. Alagappa (ed.), *Political Legitimacy in Southeast Asia: The Quest for Moral Authority*, pp. 69-10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rouch, H. 1980. "The UMNO Crisis: 1975-1977", in H. Crouch & K. H. Lee & M. Ong (eds.), *Malaysian Politics and The 1978 Election*, pp. 11-36.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Authoritarian Trends, The UMNO Split and the Limits to State Power", in J. S. Kahn & K. W. F. Loh (eds.),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pp. 21-43. Sydney: Allen & Unwin.
- Derichs, C. 2001. "Competing Politicians, Competing Visions: Mahathir Mohamad's Wawasan 2020 and Anwar Ibrahim's Asian Renaissance", in K. L. Ho & J. Chin (eds.), *Mahathir's*

- Administration: Performance and Crisis in Governance*, pp. 188-214.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 Emmerson, D. K. 1995. "Region and recalcitrance: rethinking democracy through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8(2), 223-248.
- Faaland, J., Parkinson, J. R., & Saniman, R. 1990. *Growth and Ethnic Inequality: Malaysia's new economic policy*.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Geertz, C. 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in C. G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and Africa*, pp. 105-157. New York: Free Press.
- Gill, R. 1988. *The UMNO Crisis*. Singapore: Sterling Corporate Services.
- Golay, F. H., Anspach, R., Pfanner, M. R., & Ayal, E. B. 1969.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omez, E. T. 1994. *Political Business: Corporate involvement of Malaysian political parties*. Townsville, Qld, Australia: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James Cook University of North Queensland.
- _____, & Jomo, K. S. 1997. *Malaysia's Political Economy: Politics, patronage and prof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g, P. K. 1992. "The Chinese Business Elite of Malaysia". in R. McVey (ed.), *Southeast Asian Capitalists*, pp. 127-146. Ithaca: Cornell University Asia Program.
- Ho, K. L. 1994. "Malaysia: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of UMNO leadership". in D. Singh (ed.),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pp. 179-193.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utchinson, J. 1994. *Modern Nationalism*. London: Fontana Press.
- Jesudason, J. 1989. *Ethnicity and The Economy: The state, Chinese business, and multinationals in Malay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Kedourie, E. 1960.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 Kershaw, R. 1988. "Within the Family. The Limits of Doctrinal Differentiation in the Malaysian Ruling Party Election of 1987". *Review of Indonesian and Malaysian Affairs*, 23, 125-193.
- Khoo, B. T. 1995. *Paradoxes of Mahathirism: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Mahathir Mohamad*.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Khoo, K. J. 1992. "The Grand Vision: Mahathir and Modernisation". in J. S. Kahn & K. W. F. Loh (eds.),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pp. 44-76. Sydney: Allen & Unwin.
- Mahathir, M. 1970. *The Malay Dilemma*. Singapore: Asia Pacific Publication.
- Mauzy, D. K. 1983. *Barisan Nasional: coalition government in Malaysia*. Kuala Lumpur: Marican.
- Mohamed Noordin, S. 1974. *From Malayan Union to Singapore Separation: political unification in the Malaysia region, 1945-65*. Kuala Lumpur: Universiti Malaya.
- Munro-Kua, A. 1996. *Authoritarian Populism in Malaysia*.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 Muzaffar, C. 1979. *Protector?: An analysis of the concept and practice of loyalty in leader-led relationships within Malay society*. Pulau Pinang: Aliran.
- Ongkili, J. P. 1985. *Nation-building in Malaysia, 1946-1974*.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le, P. 1999. *The Riddle of Malaysian Capitalism*. St. Leonard, NSW: Allen & Unwin.
- Shamsul, A. B. 1988. "The Battle Royal: the UMNO Elections of 1987". in A. Mohammed & C. Y. Ng (eds.),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p. 170-188.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ingh, H. 2001. "Democratization or Oligarchic Restructuring? The Politics of Reform in Malaysia". *Government and Opposition*,

35(4), 520-546.

- Smith, A. D. 1981. *The Ethnic Revival*. Cambridge: Cambridge Press.
- Vasil, R. K. 1971. *Politics in a Plural Society: A Study of Non-Communal Political Parties in West Malay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Viroli, M. 1995. *For Love of Country*. Oxford: Clarendon Press.
- von Vorys, K. 1975. *Democracy Without Consensus: commun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in Malays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n A. Manan. 1999. "A Nation in Distress: Human rights, authoritarianism, and Asian Values in Malaysia". *Sojourn*, 14(2), 359-381.
- Williamson, T. 2001. "Incorporating A Malaysian Nation". *Cultural Anthropology*, 17(3), 401-430.
- Malaysian Busine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Utusan Malaysia*.